

# 코스콤, 금융클라우드 바우처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

## »» 프레스룸

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.



- 코스콤, 금융위원회의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 운영사로 선정
-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연말까지 약 50개 핀테크에 바우처 지원 예정

? 코스콤, 총 34억원대 예산규모 금융클라우드 핀테크 지원사업자로 선정

- 코스콤, 금융위원회의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 운영자로 선정. 핀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혁신서비스를 개발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.
- 성장 유망한 소자본 핀테크 기업들에게 서비스형 인프라(IaaS)와 서비스형 플랫폼(PaaS)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예산 지원
-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은 금융위 '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'의 일환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고, 일반 경쟁입찰을 거쳐 코스콤이 서비스 운영을 맡게 되었음

? 요건 갖춘 50여개 핀테크에 바우처 지원...각종 기술 컨설팅도 제공

-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위의 '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'에 따라 기업

의 기술성, 시장성,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해 5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

- b. 선정된 기업들은 코스콤 금융클라우드에 연계되어 있는 각종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음. 특히 오픈뱅킹,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인신용정보와 중요정보를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인 핀테크 기업들은 인프라 보안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
- c. 코스콤 관계자는 “코스콤 금융클라우드를 활용해 초기 투자부담을 줄인 핀테크 기업들은 보다 혁신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”이라며 “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모여 한국형 핀테크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힘